

7년 만에 주연 호흡... "1000만 관객 자신있다"

최악 테러에 휘말린 항공 재난물 기획부터 완성까지 10년 공 들여 송강호·김남길 등 화려한 캐스팅 "상처 받은 사람들에 위로 됐으면"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이병헌과 전도연이 7년 만에 다시 만났다.

2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8월 상수기 극장가를 겨냥해 개봉하는 '비상선언'(제작 ㈜매그넘나인)을 무대 삼았다. 이들의 만남은 1999년 '내 마음의 풍금', 2015년 '협녀: 칼의 기억' 이후 세 번째다. 전도연이 2019년 영화 '백두산'에 주인공 이병헌의 아내로 특별출연 한 것을 빼면 7년 만의 주연 호흡이다.

● "의지와 진심"의 호흡

전도연과 이병헌은 1990년대 말 이후 적지 않은 작품으로 연기력은 물론 흥행 파워를 과시하면서 관객의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그야말로 한국영화 '대표 배우'들이다. 그만큼 두 사람이 주연한 '비상선언'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송강호를 비롯해 김남길, 김소진, 임시완 등과 호흡을 맞춘 화려한 캐스팅 라인으로도 기대감을 더욱 키운다.

'비상선언'은 '더 킹', '관상' 등을 만든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테러에 직면해 무조건적 착륙을 선택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항공 재난물이다. '내 마음의 풍금'에서 뜻밖의 첫사랑의 설렘을, '협녀: 칼의 기억'에서는 복잡한 애증의 감정을 나눴던 이병헌과 전도연이 최악의 항공 테러에 휘말린 비행기의 안과 밖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병헌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



'흥행 파워'를 자랑하는 이병헌(왼쪽)과 전도연이 8월 개봉예정인 영화 '비상선언'으로 관객과 만난다. 두 사람은 2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는 팔의 치료를 위해 하와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테러의 공포 속에서도 팔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영화 제

작보고회에서 그는 "공포를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전도연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토부

장관이다. 그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지"와 "진심"으로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서 영화를 선보여 "시의적절하며 경이로운 재난영화"(뉴욕 옵저버) 등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당연히 1000만 넘는다"

사실 영화는 이미 지난해 개봉을 예정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사태로 일정을 연기해 올해 8월 배일을 뱉는다. 기획부터 출발하면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과거 연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왔다"는 한재림 감독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비행기 안에서 인간이 겪는 재난의 공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밝혔다.

이병헌과 전도연이 '비상선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감독의 전작을 보며 그와 공동작업을 바라왔다는 이병헌은 "재난물의 장르영화이지만, 비주얼과 스펙터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인간이 보이는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전도연은 "시나리오도 물론 좋았지만 감독의 의도도 좋았다. '재난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의했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의 공감은 흥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전도연은 "당연히 1000만 관객을 넘을 영화라 믿고 촬영에 임했다. 흥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솔직한 바람을 드러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나영석 사단' 새 얼굴 안유진

(아이브 멤버)

24일 첫방 예능 '뽕뽕 지구오락실' 합류



안유진

"짧은 피의 힘!"

신인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방송가의 '뉴 페이스'로 떠올랐다. 이미 상당한 팬덤을 거느린 가요계 '스타'이지만, 방송 무대에서는 '생짜 신인'의 좌충우돌로 호기심을 사로잡는다. 그가 나영석 PD의 새 프로그램 '뽕뽕 지구오락실'에 합류해 예능프로그램에 본격 발을 들여놓는다. 데뷔한 지 6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신예이지만, 나 PD로부터 "금광"이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방송가 안팎의 기대까지 얻고 있다.

24일부터 방송하는 '뽕뽕 지구오락실'은 안유진과 함께 개그우먼 이은지, 가수 이영지, 오마이걸 미미가 태국에서 각종 게임을 벌이는 내용이다. '신서유기'와 비슷한 형식이어서 '여섯판 신서유기'로 불리고 있다.

안유진은 20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드디어 때가 왔다"며 남다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걸그룹 멤버라 예쁜 모습을 보여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저절로 친근한 일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PD는 "요즘 아이들 그룹은 이전보다 자연스럽고 친근한 매력"이 많아져 연출자 입장에서 다가가기 쉬워졌다"면서 "한층 젊어진 출연자들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BTS '프루프' 빌보드 200 1위...여섯 번째 대기록

데뷔 후 9년간의 시간 정리한 앨범 발매 첫 주에만 31만4000장 팔려

'언제든 돌아올 테니까/걱정하지 마/우리가 걷는 이 길이 모두 다 같이 될 테니까...'

최근 발표된 신곡 '포 유스'(For Youth)의 일부 가사에서도 팬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2013년 데뷔 이후 9년간의 시간을 정리한 앨범 '프루프'로 미국 빌보드 정상에 차지했다. "챗터 1을 마무리"하며 당분간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이들의 여섯 번째 '빌보드 200' 1위



방탄소년단

이다. 20일(이하 한국시간) 빌보드 최신 차트(25일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10일 발표한 '프루프'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발매 첫 주 31만4000장 상당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빌보드 200'은 미국에서 발매된 앨범

랭킹 차트이다. 실물 등 전통적 음반 판매량은 물론 디지털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로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는 이날 예고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판매량 대부분은 실물(CD) 앨범 판매량이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를 시작으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 '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7), '비'(BE)에 이어 '프루프'까지 모두 여섯 장의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프루프'는 방탄소년단이

2012년 데뷔해 현재에 이르는 9년의 궤적을 세 장의 CD에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 '옛 투 컴'(Yet To Come)의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의 성적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결과는 21일 나온다. '톱5' 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가요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팀 활동 체제를 잠정 중단하고 멤버별 솔로 활동 위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2년 만인 19일 SBS '인기가요' 등 방송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팬들에게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룹 활동의 마지막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에덴' '이브' 낯 뜨거운 스킨십 못매

출연자 폭력 전과도 이슈

안방극장이 과감함을 넘어 갈수록 낯 뜨거운 선정성으로 물들고 있다.

남녀 출연자들이 짝을 찾는 '썸 예능' 포맷인 iHQ 예능프로그램 '에덴'을 비롯해 '서예지의 치명적인 복수극'으로 시선을 끈 tvN 수목드라마 '이브'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에덴'은 14일 첫 방송부터 출연자들이 몸매가 드러나는 수영복을 입고 서로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이 등장했다. 속소에서 남녀를 섞어 방을 배정해 혼신을 중용하는 설정까지 나왔다.

제작진은 '밀착', '파격' 등 단어를 내세워 프로그램을 홍보해왔다. 앞선 데 달친격으로 한 남성 출연자의 폭력 전과까지 드러나면서 시청자의 못매를 맞고 있다.

서예지의 복귀작으로 화제몰이에 성공한 '이브'는 주인공 서예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몸을 이용하는 설정이 비난이 됐다. 복수의 대상인 재벌가 회장과 동침하고,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해를 하는 등 자극적인 장면이 연이어 방송되기도 했다. 19세 이상 시청가로 내걸었지만, 일부 장면은 15세 시청가 방영분에도 포함되거나 주말 저녁 시간대에 수위가 있는 베드신 등이 방송되면서 우려를 낳았다.



iHQ 예능프로그램 '에덴'과 tvN 드라마 '이브'(오른쪽)가 '선정성'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iHQ·tvN

이와 관련해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에 "일부 시청자가 '이브', '에덴' 등에 대해 선정성을 이유



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이에 대한 심의와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롯데시네마, 故송해 추모 상영회

고(故) 송해의 추모 상영회가 열린다. 20일 롯데시네마는 "22일부터 송해의 발자취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송해 1927'을 상영한다"며 "그의 소탈했던 생전 모습과 미처 전하지 못한 속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95년간 지나온 발자취를 기리고자 준비한 자리"라고 밝혔다. 윤재호 감독이 연출한 '송해 1927'은 국내 최고령 방송인으로 활동한 송해의 인생사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개봉했다. KBS 1TV '전국 노래자랑'을 34년간 진행한 송해는 95세를 일기로 8일 별세했다.

유희열, 표절 의혹에 잇따라 휘말려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표절 의혹에 잇따라 휩싸였다. 최근 각종 온라인게시판에는 유희열이 작사·작곡해 성시경이 2002년 부른 '해피 버스테이 투 유'가 일본 록 밴드 안진지대의 타마키 코지가 1998년 발표한 동명의 곡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퍼졌다. 앞서 14일 유희열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후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사과했다. 연이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일 유희열의 소속사 안테나 측은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태일이' '각질', 안시 국제애니영화제 수상

한국 애니메이션 '태일이'와 '각질'이 '애니메이션계의 칸영화제'로 불리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영화 홈페이지에 따르면 흥준표 감독의 '태일이'는 '콩트르상'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해당 부문은 도전적인 장면 애니메이션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는 전태일 열사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문수진 감독의 '각질'은 학생 졸업 작품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인간의 사회적 가면을 소재로 만든 단편으로, 지난달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